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September 2025 Issue | Vol. 6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필리핀 경제, 5.7% 성장 전망
— 무디스 — page 1-2
-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피해 주요
업종 지목 — page 2-3
- 경제전문가들, 8월 물가상승률
상승 전망 — page 3-4
- BSP, 은행들에 사기 관리 규정
미준수 시 벌금 경고 — page 4-5
- 8월 제조업 활동 성장세 둔화
— page 5-6
- 필리핀경제구역청, 판광가 경제구역
신규 산업 대상으로 재분류 — page 7
- 일반 세금 사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포함될 전망 — 재무부
— page 7-8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8-9

필리핀 경제, 5.7% 성장 전망 — 무디스

September 01, 2025 | Katherine K. Chan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는 올해 5.7% 성장 궤도에 올라 있으며, 이는 건조한 가게 소비, 꾸준한 송금, 그리고 지속적인 공공 투자에 힘입은 것이라고 무디스 레이팅스가 밝혔다.

무디스는 필리핀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기 검토를 마친 뒤 “필리핀이 역대 및 신용등급 유사국에 비해 강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무디스는 “성장은 회복력 있는 가게 소비, 해외 노동자의 안정적인 송금 유입, 공공 투자 지출,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 개혁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무디스는 “성장은 회복력 있는 가게 소비, 해외 근로자의 안정적인 송금 유입, 공공 투자 지출,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 개혁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의 전망치는 올해 정부가 수정한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인 5.5~6.5% 범위 안에 있다.

올해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해 1분기의 5.4%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보다는 둔화됐다.

상반기 평균 GDP 성장률은 5.4%로, 전년 동기의 6.2%보다 낮았다.

무디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를 지적했다.



Individuals walk along España Boulevard in Manila.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무디스는 “필리핀의 교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노출은 비교적 낮지만,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국내 소비와 투자에 일부 하방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월 7일부터 필리핀산 수입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산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성장은 재정 통합 노력에도 힘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디스는 정부의 높은 부채 규모와 이자 부담을 우려했다.

무디스는 “재정 통합 노력은 정부가 개정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목표(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4.3%로 축소)를 달성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수 확대와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조치의 시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디스는 이러한 노력이 필리핀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부채 규모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 기준 필리핀의 국가 채무는 17.27조 페소로, 2024년 같은 달의 15.48조 페소에서 11.5%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부채/국내총생산 비율)은 63.1%에 달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다자간 대출기관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감당 가능하다고 보는 60% 기준을 웃돈다.

무디스는 “수입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로 측정되는 채무 상환 능력은 향후 2년 동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차환 금리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장기 추세로 회복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Cont. page 2]

필리핀 경제, 5.7% 성장 전망 — 무디스

[Cont. from page 1]

무디스는 “2024년 하반기 이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부 자금 조달 비용과 통화정책 파급효과의 지연으로 인해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지난해 8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0bp(기준금리 1.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무디스는 필리핀이 “국내외 자금 조달원에 대한 강력한 접근성과 충분한 외화 보유액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자본 흐름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무디스의 정기 검토는 2024년 8월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Baa2”로, 전망을 “안정적”으로 확정한 뒤 이루어졌다.

무디스는 이번 전망이 “Baa2 등급 수준에서의 위험 균형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디스는 “지난 수년간 시행된 구조 개혁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성장률이 현재 예상보다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정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딘 재정 통합으로 인한 재정 이탈 가능성, 역대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기후 관련 충격이 국가의 경제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한 필리핀의 경제적 강점에 대해 “a3” 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다른 투자목적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1인당 GDP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경제의 강한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리핀의 제도 및 거버넌스에 대한 “baa1” 등급은 기존의 거버넌스 과제와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의 효율성 간의 균형을 보여준다.

반면, “ba1” 재정 건전성 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부채 수준, 증가하는 부채 비용,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외화표시 부채를 의미한다.

무디스는 지속적인 강한 경제 성장과 팬데믹 충격에서의 회복세가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압력은 현재 예상보다 더 빠른 재정 및 정부 부채 지표의 개선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팬데믹 충격으로 인한 악화에서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은행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무디스의 “긍정적인 평가”를 환영했다.

엘리 M. 레몰로나 Jr.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필리핀은 충분한 외화보유액과 정책적 여력을 구축하여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고,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기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9/01/694761/phl-economy-on-track-to-grow-by-5-7-moodys/>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피해 주요 업종 지목

September 01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필리핀 수석 통상교섭관 앨런 B. 켈티 무역차관보에 따르면, 미국이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19% 상호관세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전자 데이터 기기, 파인애플 주스, 코코넛 오일, 의류, 여행용품, 핸드백 등이다.

최근 경제위원회, 외교위원회, 세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상원 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19% 상호관세로 인해 어떤 제품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켈티 차관보에게 질의했다.

켈티 차관보는 일부를 필리핀어로 답변하면서 “우선 전자 데이터 기기인데, 이는 주요 수출 대상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파인애플 주스 역시 미국이 주요 시장이며, 공기타이어, 여행용 가방 및 기타 보온 가방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ont. page 3]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피해 주요 업종 지목

[Cont. from page 2]

그는 코코넛 오일 역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미국은 코코넛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품목은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잭티 차관보는 이어 항공기 부품, 접화 배선 세트, 기타 제품, 여행용품 및 핸드백 등을 추가로 언급하며 “이들이 우리가 확인한 주요 품목들”이라고 상원 청문회에서 말했다.

필리핀 수석 통상교섭관은 필리핀의 대미(對美) 전체 수출의 53%가 반도체와 전자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23%는 반도체로, 이미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나머지 전자제품인데, 이는 여전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19% 상호관세 대상이라는 점이다.

잭티 차관보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들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0%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핀 협상팀이 미국에 이러한 핵심 품목의 면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제 품목 리스트를 제출했고, 미국 측에 이 제품들이 자국 시장의 제품을 보완하는 핵심 품목이므로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특히 농산물처럼 미국이 실제로 생산하지 않는 품목도 포함된다”고 잭티 차관보는 덧붙였다.

워싱턴이 부과한 19% 관세를 낮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잭티 차관보는 “답은 그렇다. 모든 것은 협상 대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행정명령에도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포함돼 있다. 협상 진행 상황과 교역 상대국의 조치에 따라 인상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잭티 차관보는 협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하나는 시장 접근성이지만, 필리핀은 다른 경제권과 달리 매우 신중하다. 어떤 국가는 자국 시장의 99%를 개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필리핀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 제안한 품목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즉각적인 면제 협상 필요성”으로, 협상팀은 주요 수출 시장이 미국인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흐름에 따라 잭티 차관보는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유리한 협정을 미국과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동맹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2025년 1~7월 기간 동안 필리핀은 미국으로 77억6천만 달러(전체 수출의 16%)를 수출했다.

한편 홍콩은 같은 기간 동안 68억3천만 달러(14.1%)를 기록하며 필리핀의 두 번째 주요 수출 시장으로 나타났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01/chief-trade-negotiator-lists-tariffs-top-victims/>

경제전문가들, 8월 물가상승률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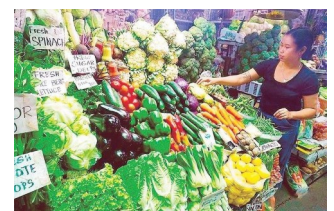
September 01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7월에 0.9%로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뒤, 8월에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식품, 연료,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해 완만한 물가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니온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카를로 아순시온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0.9~1.5%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며, 중앙 전망치는 1.2%라고 밝혔다.

그는 “7월 0.9%에서의 소폭 반등은 에너지 가격 상승, 임금 조정, 수입품(특히 약세 폐소 상황에서)의 전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60일간 쌀 수입 금지 조치에 앞서 쌀 생산 지역에서 쌀 원료(팔라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상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차질 역시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nt. page 4]



UnionBank chief economist Carlo Asuncion said the August consumer price index (CPI) likely rose by 0.9 to 1.5 percent, with a central forecast of 1.2 percent.

STAR / File

경제전문가들, 8월 물가상승률 상승 전망

[Cont. from page 3]

반면, 기저효과와 7월에 전년 대비 15.8% 하락한 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니온뱅크는 2025년 물가상승률이 평균 1.6%에 그쳐,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목표 범위인 2~4%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 이코노미스트 사라 탄 역시 8월 CPI가 운송비와 연료비 상승을 반영해 1.1%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녀는 농업부가 수입 쌀에 대한 최대 소매가격(MRP)을 낮추는 등 정부 조치로 식품 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 필리핀은 기후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상 이변이 식량 수확량에 영향을 미쳐 식품 물가 하락세를 되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유가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물가 상승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속적인 공급 충격이 없다면 2025년 물가상승률은 약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은행 씨티도 8월 CPI를 1.1%로 전망했지만, 최근 임금 인상, 전기요금 상승, 쌀 수입 중단 조치가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씨티는 BSP가 오는 10월과 내년 2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쌀과 전력 비용이 물가를 자극하거나 3분기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견조할 경우 완화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이코노미아 어드바이저리 & 리서치(Oikonomia Advisory & Research Inc.)의 경제학자 레이니엘 뎃 에레세는 8월 물가상승률을 1%로 추정하며, 채소와 전기요금이 다소 상승한 점을 지목했다.

그러나 그는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과 글로벌 유가 약세로 인해 물가 압력은 여전히 약하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4개월간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2~4%)를 밑돌고 있어, BSP가 지난해 8월 이후 총 150bp(1.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9월 5일 8월 CPI 공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9/01/2469480/economists-expect-higher-august-inflation>

BSP, 은행들에 사기 관리 규정 미준수 시 벌금 경고

September 01, 2025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사기 관리 시스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제재, 심지어는 면허 정지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 관계자가 경고했다.

BSP의 엘모어 카폴 부총재는 지난주 기자들에게 “만약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누군가 사기를 당한다면, 은행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좌사기방지법(Anti-Financial Account Scamming Act)’에 따라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표시·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사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다수의 유사하거나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와 같은 ‘고빈도 활동(high-velocity activity)’은 보통 봇, 악성코드, 제로데이 익스플로잇 또는 기타 정교한 공격 수법을 통해 실행되는 사기 행위를 시사할 수 있다.

카폴 부총재는 금융기관에 내년 8월까지, 즉 1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다며 그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객이 사기의 피해자가 될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벌금, 제재, 심지어는 면허 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동시에 법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5]

BSP warns banks of fines for not complying with fraud management rules

[Cont. from page 4]

“즉, 내가 고객으로서 사기를 당했는데 해당 은행이 이 사기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제 은행이 나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은행들은 특히 계좌 보유자가 직접 신고한 의심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어, 자금이 사기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은행 간의 협력적 검증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시간 정보 및 신속한 사기 이체 차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 카풀레 부총재는 “사기꾼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은행의 시스템이 저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신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

BSP는 은행이 사기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배상 명령을 내리게 된다.

카풀레 부총재는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뒤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이 직접 고객에게 배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특히 대형 은행들에게는 준수가 비용이 많이 들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규정은 국민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

BSP는 “이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한을 연장한다면, 결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라며, 연장 여부는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Board)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9/01/business/top-business/bsp-warns-banks-of-fines-for-not-complying-with-fraud-management-rules/2176530>

8월 제조업 활동 성장세 둔화

September 02,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필리핀 제조업 활동이 8월에도 확장세를 유지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시행 여파로 생산과 신규 주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지난 두 달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S&P 글로벌이 월요일 밝혔다.

S&P 글로벌 필리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7월 50.9에서 소폭 하락한 50.8을 기록했다.

이는 6월의 50.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PMI가 50을 넘으면 전월보다 영업 환경이 개선됐음을, 5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이코노미스트 마리얌 발루흐(Maryam Baluch)는 “필리핀 제조업 부문은 다시 한 번 둔화된 성과를 보였으며, 생산과 신규 주문 증가율 모두 역사적 평균치에 못 미쳤다” 고 말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주요 회원국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8월 PMI는 태국(52.7)과 인도네시아(51.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서 S&P 글로벌은 8월 생산과 신규 주문 모두에서 “완만한” 성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는 신규 고객 확보와 수요 개선에 힘입은 결과였다.

제조업 생산은 8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수준” 이라고 밝혔다.

S&P 글로벌은 “생산 확대를 뒷받침한 것은 꾸준한 신규 주문 증가였다” 며, “성장률은 대체로 7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들은 신규 고객 확보와 기초 수요 트렌드 개선이 최근 확장의 주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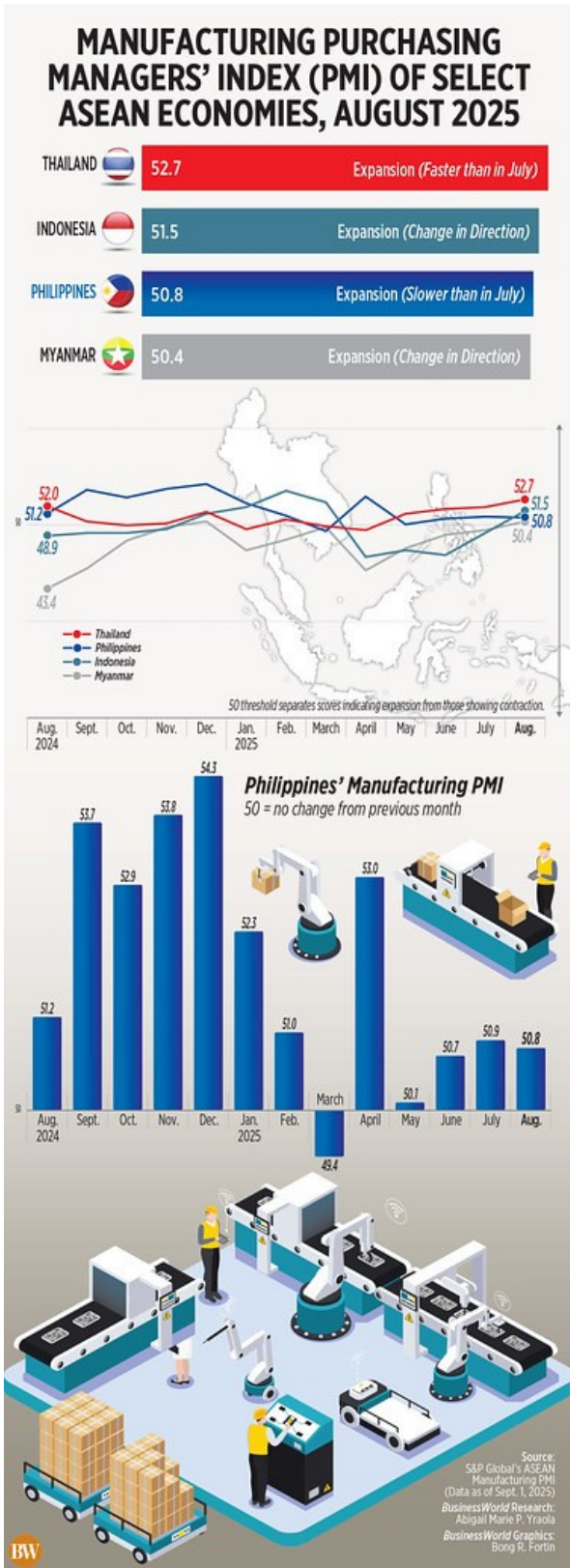
[Cont. page 6]



Workers are seen inside a manufacturing facility in Sto. Tomas, Batangas, March 1, 2023. — PHILIPPINE STAR/ KJ ROSALES

8월 제조업 활동 성장세 둔화

[Cont. from page 5]



필리핀 제조업체들은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주문 증가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S&P 글로벌은 8월 구매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전했다.

발루크(Baluch) 씨는 8월 고용 창출이 중단되면서 두 달 연속 이어진 ‘소폭 증가세’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생산 요구 증가와 고용 정체가 맞물리면서 미처리 업무(backlog)가 더욱 쌓였으며, 그 속도는 6개월 만에 가장 빨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8월 완제품 재고는 새로운 주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폭 감소”했다.

“지난 네 번의 조사 중 세 번에서 감소가 나타났으며, 일부 기업은 창고의 폭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재고를 방출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S&P 글로벌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8월 물가 압력이 비교적 억제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발루크 씨는 “비용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통제를 시도하면서 매출 회복에 필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제조업체들의 향후 12개월에 대한 신뢰도는 4개월 연속 개선되어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수요 환경이 개선되어 생산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은 장기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억제된 수준에 머물렀다”고 S&P 글로벌은 분석했다.

한편, 8월 7일부터 필리핀산 다수 상품에 대해 19% 관세가 부과되면서 제조업 활동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리잘 상업은행(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이번 둔화는 미국 관세로 인해 일부 수출업체들이 ‘관망세(wait-and-see)’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가 2025년 8월 7일 발효되기 전에 일부 수출이 앞당겨진 것과, 3분기 동안 일부 국내 제조업체들의 계절적 수입·생산 증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고 설명했다.

리카포트 씨는 미국의 높은 관세가 결국 미국 수출 수요를 둔화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9/02/695096/factory-activity-growth-slows-in-aug/>

필리핀경제구역청, 팜팡가 경제구역을 신규 산업 대상으로 재분류

September 01, 2025 | Joan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팜팡가 주에 있는 관광 경제구역을 혼합용도 특수 경제구역으로 재분류해 농공업 및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한 추가적인 비즈니스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PEZA는 성명에서, 테레사 팜가 청장과 Hann Philippines Inc.(HPI)의 미첼 에스타시오 법무 담당 이사가 8월 19일 마카티시 소재 PEZA 본부에서 한 리저브(Hann Reserve) 등록을 위한 추가 협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PEZA는 이번 협약 서명이 “변혁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전국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경제구역을 조성하려는 PEZA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수 경제구역에는 관광, 제조업, 농공업, 정보기술 부문이 하나의 지속가능한 개발 아래 함께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팜가 청장은 “한 리저브의 이번 재분류는 산업, 혁신, 농업, 관광을 하나로 융합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는 새로운 경제구역 개발의 시대를 여는 것” 이라고 말했다.

PEZA는 이번 재분류를 통해 한국 주도의 투자사인 한 리저브(Hann Reserve)가 “산업, 농업, 기술, 관광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마스터플랜형 명소로 부상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사회에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팜팡가를 루손의 대표적인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가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농촌을 발전의 중심에 두고 포용적이고 균형 잡히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리핀 경제구역화(에코조닝)라는 PEZA의 사명을 강화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PI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번 재분류로 HPI는 455.60헥타르 규모의 임대 부지에 더 다양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HPI는 팜팡가 클락 자유무역지대에서 통합형 라이프스타일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7749](https://www.pna.gov.ph/articles/1257749)



MULTI-USE. The resort and hotels operated by South Korean-led Hann Philippines Inc. in the Clark Freeport Zone, Pampanga province, are shown in this undated photo. 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has reclassified the tourism economic zone as a mixed-use Special Economic Zone to accommodate firms from the tourism, manufacturing, agro-industri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s. (Photo courtesy of HPI)

일반 세금 사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포함될 전망 — 재무부

September 01,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Department of Finance (DOF) headquarters at BSP Compound, along Roxas Boulevard, Malate, Manila

재무부(DOF)가 발표한 일반 세금 사면(GTA)은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금 체납을 포함할 수 있다.

월요일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브리핑에서 국세청 운영그룹의 찰리토 R. 멘도사 차관은 GTA가 2024년과 그 이전 연도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멘도사 차관은 추가 세부 사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도 계속 검토 중이다. 사실 아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추가 검토를 위한 작업 초안이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확실히 일반 세금 사면 법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다. 그것은 확정된 사항” 이라고 덧붙였다.

멘도사 차관은 상속세, 소득세, 원천징수세 등 모든 국세와 더불어 관세청이 징수하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도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세금 사면을 시행하면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멘도사 차관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 집행을 통해 추적하는 대신,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8]

일반 세금 사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포함될 전망 — 재무부

[Cont. from page 7]

최근 랄프 G. 렉토 재무장관은 재무부(DOF)가 일반 세금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렉토 장관은 이번 세금 사면이 과거 의회를 통과했으나 로드리고 R.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조세연구센터(NTRC)는 당시 거부권 행사 이유로 △조세 포탈 사건에 대한 은행 비밀주의 장벽을 허무는 정보 자동 교환 제도의 제도화 조항 부재 △막대한 세수 손실 등을 지적했다.

일반 세금 사면은 원래 소득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사업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 모든 국세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올해 초, 국세청 운영그룹의 유비밀 니나 R. 아순시온 국장은 재무부가 일반 세금 사면 추진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순시온 국장에 따르면 일반 세금 사면 법안(GTA Bill)은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Image credits: Patrick Roque vi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9/01/general-tax-amnesty-likely-to-cover-2007-to-2024-dof/>

[다가오는 행사]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2012년부터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Arangkada Philippines Forum)*은 필리핀의 투자, 경제 개혁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연례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파사이 시 마리오트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의 저명한 리더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 전략과 기업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합동 외국상공회의소)**가 선정한 7대 ‘성장 유망’ 부문인 ▲농기업(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포럼 첫날에는 정부 및 기업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7개 부문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의 독점적인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실시간 제품 및 비즈니스 시연, 그리고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산업 토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스폰서십 문의는 아랑카다 필리핀 웹사이트의 [브리퍼(Briefer)], [후원 등급(Sponsorship Tier)], [확인서(Confirmation Form)]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KCCP 사무국(전화: (632) 8885-73-42 / 이메일: info@kccp.ph)**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_OGtu0y-PZCQvnwSbvt2Xuraw/viewfor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RICKY CARANDANG
HEAD OF EXTERNAL
AFFAIRS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ANDREW JEFFRIES
COUNTRY DIRECTOR FOR
THE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ATTY. ELAINE COLLADO
COUNTRY DIRECTOR
PHILIPPINES
VRIENS & PARTNERS



USEC. ASIS PEREZ
UNDERSECRETARY
DEPARTMENT OF
AGRICULTURE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MARICAR BAUTISTA
SPOKESPERSON FOR
BUSINESS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SATYA RAMAMURTHY
CHAIR PUBLIC SECTOR,
STRUCTURED FINANCE
DEPARTMENT ASIA PACIFIC
SMBC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PAO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IM WEI SIONG
VICE PRESIDENT,
GOVERNMENT AFFAIRS &
POLICY, ASIA PACIFIC
MASTERCARD



**GRACE MIRANDILLA-
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AFAEL ONGPIN
EXECUTIVE DIRECTOR
MAKATI BUSINESS CLUB



RONALD ACIO
SENIOR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GHD



**MONICA LORENZANA
TRAJANO**
VICE PRESIDENT FOR
COMMERCIAL STRATEGY
ABOITIZ INFRACAPITAL
ECONOMIC ESTATES



FRANCISCO MORENO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ACCIONA SEA



**ENGR. EMMANUEL
CAGUIMBAL**
FOUNDER AND CEO
XPERTO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facebook.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https://www.instagram.com/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https://twitter.com/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https://www.linkedin.com/company/Arangkada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CO-PRESENT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Gersoni Weyer & Co. All Rights Reserve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